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주태국 유럽연합 대사를 접견했다.

입력 2019.12.16



2019년 12월 16일(월요일) 10.00 시에 추안 립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국회의사당 4층에 접견실에서 태국국회와 유럽연합 사이의 관계를 촉진에 힘써온 필카 타피올라(Pirkka Tapiola) 주태국 유럽연합 대사의 이임 인사를 겸한 예방을 받았다. 국회의장은 태국국회와 유럽연합 사이의 긴밀한 관계 촉진을 위한 필카 타피올라 대사의 활동과 예방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유럽연합 대사는 태국 국회의장의 정치적 경험과 경력에 찬사를 보내며 태국이 총선 이후 유럽연합은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비롯하여 태국-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의 등 태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적절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래에도 양측 의회간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정치, 민주주의, 법률, 절차적 민주성 등의 분야에 대한 대담뿐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해서 유럽의회의 회원국과 비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위한 "Inter Pares Parliament in Partnership" 계획에 대해 태국국회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 육성 계획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국제의회단체사무국

번역: 썸자이 통쿤,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